

대형마트 · SSM 지역기여 근거 마련

‘전주시 대형유통기업 유통상생 협력 조례’ 공포... 실적 시 홈페이지 공개 · 지역유통상생위 근거도

전주시가 지역에서 많은 이익을 거둬들이면서도 환원에는 인색한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를 늘리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대형마트로 한정됐던 지역기여 대상을 SSM(기업형 슈퍼마켓)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대형마트, SSM(중대규모점포) 등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상권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자본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기존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조례를 전주시 대형유통기업 유통상생 협력 조례로 전면 개정·공포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지역기여 권고대상을 SSM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SSM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지역경제를 위협해왔지만,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일에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조례에는 대형유통기업들의 지역기여 참여비율과 규모를 늘리기 위해 지역사회 환원 이행실적 등을 시민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www.jonju.go.kr) 등을 통해 공개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동시에,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에 힘

쓰은 지역기여 우수 대형유통기업에는 홍보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상권과 대형유통업체와의 끊임없는 상생발전 모색과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전주시 지역유통상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항도 조례에 포함시켰다. 주요 내용은 지역유통상생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민단체와 대형유통기업 등의 참여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주에는 현재 대형마트 7곳, 백화

점 1곳, 쇼핑센터 3곳, 복합쇼핑몰 1곳, 중대규모점포 총 31곳(이마트에브리데이 4, 롯데마트 1, 롯데슈퍼 17, GS슈퍼 7, 홈플러스익스프레스 1, 농협하나로마트 1)이 입지해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전주 지역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등 주요 대형유통기업이 지역사회에 환원한 지역기여 규모는 전체 매출액의 0.044%에 불과했다.

이에, 시는 이번 조례 전면 개정으로 지역기여도를 높여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채규남 기자

군산대, 서남대 학생 특별편입학

총 871명 선발... 원서접수 1차 2~8일

군산대학교는 서남대학교 폐쇄 명령에 따른 재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별편입학을 실시한다.

선발인원은 총 871명으로 특별편입학 운영대학 중 최대 규모이다. 특별편입학은 서남대학교 현재 소속 학과/전공을 기준으로 군산대학교 지원가능 학과/전공 범위를 구분하며 학년별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편입학 준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별도의 전형료는 미징수하며, 전적대학(서남대) 백분율 점수를 기준으로 선발한다.

특별편입학 선발은 1차와 2차로 구분되며, 1차 원서접수는 1월 2일부터 1월 8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2차 원서접수는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되고, 1차 모집 결과 미충원된 경우에 한하여 선발한다. 1차 모집에서 전원 선발할 경우 2차 모집은 실시하지 않는다.

특별편입학을 통하여 선발한 인원은 군산대학교 졸업까지 '정원외' 정원으로 인정되어 관리할 예정이다.

국립 군산대학교는 서남대학교 특별편입학 운영을 통해 지역중심 국립대학교로서의 사회적 책무성을 이행하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학생 신뢰보호를 위한 노력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2017 자랑스런 전주사람 시상식

전주시가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쉽 없이 달려왔던 2017년 정유년 한 해를 치분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했다.

시는 지난 29일 시청 강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직원 400여명과 유공시민 100여명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자랑스런 전주사람 시상식을 가졌다.

비리국악단의 축하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시상식에서는 전주를 대한민국 축구의 메카로 만드는 데 힘쓴 이철근 전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 단장에 대한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시정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시민들과 헌신적인 업무태도로 공직사회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 등 110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전주시는 지난 29일 시청 강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직원 400여명과 유공시민 100여명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자랑스런 전주사람 시상식을 가졌다. 시상식에서는 우수 공무원 등 110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고준희양 주검으로... 친부가 야산에 유기

경찰, 친부 고모씨 · 양외할머니 김모씨 시체 유기혐의로 긴급체포

실종된 고준희양이 친부가 고양의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음이 드러나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전주역전경찰서는 지난 12월 29일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친부 고모(36)씨와 양외할머니인 김모(61)씨를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고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의뢰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월 8일 고양의 실종 신고를 접수 후 친부인 고씨 진술에 따라 실종 시점을 11월 16일 이후로 파악하고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예상된 실종시점에서 한달이 넘도록 고양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또한 지난 9월 19일 병원진료를 받은 기록과 3월 30일 고양의 마지막은

로 어린이집을 등교한 이후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던 고모가 사용했다는 칫솔과 그릇에서 고양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강력범죄로 수사방향을 전환해 지난 12월 22일 고양의 가족들에게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준희양 생필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11월 16일보다 4일 앞서 모든 가족들이 휴대전화를 비싼 정황이 포착됐다.

또 고양의 가족 3명에 대한 행적수사 중 지난 4월 28일부터 4월 27일 사이 특이한 이동 패턴을 발견해 이 기간에 고양에 대한 범행을 특정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친부 고씨와 양외할머니 김씨를 상대로 행적 및 진술의 모순점 등에 대해 추궁하던

중 사망한 고양의 시체를 지난해 4월 27일에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고양은 시신은 12월 29일 4시 50분께 군산 내초동 야산에서 수습됐다.

경찰조사에서 고씨는 지난 4월 28일 병원진료를 위해 김씨에게 고양을 맡겼고 다음날 오전 1시에 고양을 이미 태로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고씨는 이혼소송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양모 이모(36)씨가 범행 공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신병 확보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조사를 통해 고씨와 김씨, 이씨에 대해 고양의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삼민 기자

교육장 3명, 3월 1일자 임용 예정

전북도교육청이 2018년 3월 1일자로 3명을 교육장으로 임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9일 전북교육청은 이숙경 이리부속초등학교 교장, 정찬호 신대인초등학교 교장, 이인숙 진안여자중학교 교장을 교육장 임용에 정자로 확정짓는 교육장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숙경 이리부속초등학교 교장, 정찬호 신대인초등학교 교장, 이인숙 진안여자중학교 교장

이숙경 이리부속초등학교 교장은 올해 만 57세로 전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김제북초와 부송초 교장을 지냈다.

정찬호 신대인초등학교 교장은 올해 만 58세로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남원교육지원청 영어체험학습센터장과 신대인초 교장을 지냈다.

이인숙 진안여자중학교 교장은 올해 만 59세로 공주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북교육청 장학관과 진안여자중학교 교장을 지냈다.

/김민근 기자

덕진 진북파출소, 여성 1인 운영업소 범죄예방 활동

전주덕진경찰서 진북파출소가 연말연시 특별치안범죄예방 활동을 진행 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 28일부터는 관내 여성인 운영업소를 중심으로 최근 잇따라 여성인 운영업소 살인사건 및 생명위협을 가해 현금을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와 같은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여성 1인이 운영하는 미용

실 5개소를 방문해 범죄예방 CCTV 및 비상벨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자체 방법시설 구축을 당부하는 등 범죄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했다.

최광재 진북파출소장은 "연말연시 범죄로부터 대항능력이 적은 여성업주가 안심하고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주변 순찰을 강화하겠다"며 "자위방비시설 구축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삼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www.jbbank.co.kr 1588-4477

2018

지난 한 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는
전북은행이 되겠습니다

JB금융그룹 JB금융지주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PPCBank JB Capital Myanmar

전북은행